

영어라는 ‘사다리’는 걷어차지 말자

김환영 | (중앙일보 논설위원)

본문은 중앙일보 2016년 4월 1일 자에 게재된 기사 [세상읽기] 영어라는 ‘사다리’는 걷어차지 말자 전문으로 기고자와 협의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선배의 부인께서 항상 강조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 말이다. “수학을 포기하는 것은 대입을 포기하는 것, 영어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기회인가.

예컨대 이런 기회가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헤네시 스탠퍼드대 총장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세계 우수 대학들이 탐내는 석학은 불과 2000여 명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환영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건 가고 싶은 대학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예컨대 학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급 학자가 중국에 있는데 그가 영어를 모른다면 그를 영입하기 위해 통역까지 채용할 것인가.” 헤네시 총장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학자의 제자를 뽑을 것이다”고 답했다. 헤네시 총장의 말은 오래 전 읽은 글을 떠올리게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었다. 어떤 우리 재미 동포의 아들이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너는 미국 출생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놀렸다는 것이다. 우리 동포는 귀국을 결심했다. 자식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극소수 사람만이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나 국가 최고지도자가 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나’나 ‘내 자식’

하고는 동떨어진 세상 이야기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적어도 엄청난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연상 작용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을 낳은 사연을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김용옥 학생은 어떤 분이 부러웠다. 그래서 그 선생님처럼 ‘폼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영어만 잘하면 돼”가 대답이었다. 그 말을 굳게 믿은 도올은 꾀를 피우지 않고 ‘무식하게’ 어학을 연마했다. 물론 영어만 잘하면 안 된다. 전공 분야에서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영어를 잘하면 전공 분야 문헌을 남보다 빨리 흡수할 수 있다. SK의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은 “어차피 신입사원들을 새로 다 가르쳐야 하는데 영문학과 출신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한 가지 스킬(skill)을 익힌 경험이 있어야 다른 스킬도 쉽게 배운다.

세계화된 세상이다. 유학을 안 가도 된다.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이건 세계 500등 안에 못 드는 대학이건 상관없다. 박사과정 졸업 전에, 그리고 후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뛰어난 논문을 게재하면 된다. 얼마든지 하버드대·옥스퍼드대 교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세계화는 나쁜 점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좋은 점도 있다.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말한 ‘사다리 걷어차기’는 국가 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의도했건

